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운영

고흥군, 책놀이 지도사 21명 하반기 활동 나서



고흥군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하반기 프로그램을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드림스타트센터·고흥읍, 대흥어린이집 금산면, 고성어린이집 포두

면, 대서초등학교 등 관내 아동교육 기관 13곳에서 월 2회 이상의 구연 동화 및 동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절되거나 쉬운 조손세대를 연결

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프로그램은 만 56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르신(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고흥군립중인도서관에서 실시했던 ‘책 놀이 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로 구성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야기보따리 할머니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유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군립중인도서관에서는 매주 1층 어린이 책나리를 방문하는 이용자(5세 이상~초등 저학년)를 대상으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는 당일 선착순 접수이며, 해당 요일에 도서관을 방문해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의약업소 80여개소 지도점검 실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오는 20일까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내 의약업소 80여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의료 법규 개정사항 지도 및 법령 준수를 통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위생요소 차단으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일정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지

도점검반을 편성해 자율점검표 제출 의약업소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업소 및 지난해 의약업소 점검 시 현장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시행업소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 의료인력 확보 ▲면허허의의 의료 및 의료기사 업무 행위 ▲미약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의료기구 소독 준수 여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사전 설명회 실시



함평군이 지난달 28일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관광

군은 또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업소별 맞춤형 위생관리 컨설팅을 오는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등대요령과 성공적인 경영관리 방법 등 컨설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다시 함평을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시작

신안군은 6월 25일부터 7월 24일 까지 30일간 14개 읍면 146개 마을회관과 농업현장에서 농업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읍면 지소장 및 전문지도사가 각 마을을 방문해 친환경농업, 작물별 충전 세비 관리와 병충방제기술 등 농기가 필요로 하는 주요작물 핵심영농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안내, 녹색작물재배 등 주요 농업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사진과 그림 위주의 교재를 배부,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우리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보건서비스 향상 위한 소양교육 실시

구례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초점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지난달 28일 보건의료원 담당체질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군민이 민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보건의료원은 의료 및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보건행정에 능동적인 대처와 보건향상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반기별 교육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역할, 이미지 컨설팅을 통한 친절함 갖추기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공공보건 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해 건강증진을 실현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드림스타트, 밤상머리 영양교육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6월 30일 가정복지회관에서 아동과 양육자 15

명을 대상으로 ‘밤상머리 영양교육’ 시간을 가졌다.

‘밤상머리 영양교육’은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기본 영양 정보부터 기본적인 식사에 대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부모와 아동이 식사하면서 음식 섭취로 얻는 영양 정보를 배우고, 식사 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의법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는데 중

점을 뒀다.

또 아동들이 직접 크레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시간을 마련해 요리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다.

강사로 나선 장성군 보건소 김미원 영양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워낙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 간 함께 나눌 대화도 사라지고 있다”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 예절을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www.jepa.kr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지 안내